

❖ 시작하는 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받아 드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중심 되는 말씀

1. 기도는 내용보다 ()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 내용이 많은 반면, 세리는 기도의 내용이 없이 그저 기도하는 모습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란 사실을 감사해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리에 대해서는 그저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께 서있는 모습만 그럴 뿐입니다. 이 부분은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세보다 기도의 내용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눔 질문) _____

2. 기도는 나의 ()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 자신’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받지 않으시면 내가 드리는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나눔 질문) _____

3. 은혜의 ()로 나아가야 합니다

행위만 놓고 본다면 바리새인의 행위는 옳은 것이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세리의 행동은 옳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리를 받으신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리의 행위를 정당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옳게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성실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갈 때에는 이 노래가, 이 기도가, 이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주님 보좌로 나아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나눔 질문) _____

❖ 정리하는 말

돌이켜 보니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못했고 세리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안에는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내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찬송과 경배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 마음문 열기 한주간 감사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인애하신 구세주여”(찬279)

- 1)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 2)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주소서
- 3)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주소서
- 4)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주소서 우리 주와 갓으신 이 어디 있을까
후렴)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